

현지화 포커스, ‘선택과 집중’ 이 핵심전략

역동적이고 다양한 한국문화, 유럽서 열매맺어야
오랜 시간 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치밀한 전략 필요

글_ 김승근(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행사의 하나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아마도 2002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민족의 저력이었을 것이다. 당시 독일뿐 아니라 세계인의 눈에 비쳐진 한국의 새롭고 역동적인 모습은 한국을 더 알고자 하는 관심으로 이어졌음이 분명하다. 월드컵 직후 포스트월드컵이라는 화두가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화두로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으로서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 이후에 생각하는 포스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은 남다른 감회를 안겨준다.

1980년 후반 독일과 유럽에서의 유학 당시 한국의 위상은 1950년대 전쟁 직후의 암울한 상황과 70,80년대를 두고 계속

되었던 정치적인 불안과 왜곡된 시장경제 등으로 인하여 다소 긍정적이지 못했던 시기였다. 특히 문화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로 인식되었던 시기였다.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비로소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본인이 유학 당시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접하면서 경험하였던 많은 약소 국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서글픔은 단지 경제적인 것뿐만은 아니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의 실망감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본인이 전공하는 음악분야에는 작곡가 윤이상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계셔서 이러한 문화적인 면에서 크게 위로가

유럽에 한국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속적인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은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한국이 마련한 주빈국관.



되었다. 향후 인적자원의 양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될 만큼 당시 윤이상이라는 이름은 한국문화와 음악의 우수성을 증명할 만큼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도서관의 주빈국 행사를 치르면서 70년대 독일로 유학하여 현재 브레멘 예술대학의 작곡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영희 선생이 가지는 감회는 본인과 비교하여 훨씬 더 큰 것이었다. 행사기간 중 차편으로 3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브레멘에서 기차로 3번이나 왕복하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서 본인은 한 나라의 문화적인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주빈국조직위원회에서 음악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본인이 기획한 몇 가지 공연들의 가장 중요한 콘셉트는 한국 음악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의 표현이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묘에서 일 년에 단 한 번 볼 수 있는 종묘제례악을 프랑크푸르트로 옮겨 공식행사로 치름으로써 한국 음악문화의 엄숙함과 위엄을 보여주었고, 3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관소리 - 심청가> 공연은 자세한 독일어 자막으로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독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역동적이면서도 힘 있는 민속음악의 정수를 소개하였다. 현대음악공연으로 세계최고의 음악단체이며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의 앙상블 모데른이 윤이상과 그 이후 세대인 한국작곡가들의 작품만을 모아 자신들의 정기연주회 무대를 장식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특별히 신작들을 위촉하여 세계 초연하였으며 향후 독일 전역에 방송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음악행사가 행사기간 중에 펼쳐져 독일과 전 세계에서 온 문화관계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이렇듯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력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해외에서의 우리의 문화전략은 대부분의 경우 현지의 특수한 사정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입장 위주로 펼쳐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 프랑크푸르트도서관 주빈국의 핵심전략은 무엇보다도 현지화에 포커스를 맞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관과 독일 내의 한국의 해를 계기로 외무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여러 행사 지원을 독일로 맞추었다는 점은 매우 좋은 전략이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적인 역량을 조심씩 여러 개로 나누어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전략을 철저히 짜서 한 해에 한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한국의 문화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도 충분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본인이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당시 90년대 초에 펼쳐졌던 <베를린예술제>에서 중심 국가로 선정된 일본이 보여주었던 총체적인 기획은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소한 5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으로 판단될 만큼 광범위하고 계획적이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관의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짧았던 시간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보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큰 인내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문학작품이 많다면 당연히 노벨문학상 수상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노벨상을 위해서 작품을 쓸 수는 없지 않나? 그러므로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번역이 필요하며 이를 문화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과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현재 한류로 대표되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랑크푸르트에서 펼쳐진 한국문화의 역량은 현지인들뿐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놀랄 정도로 역동적이며 다이내믹한 것이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관의 큰 성공을 계기로 유럽에서 한국문화라는 희망의 작은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한다. 이는 출판이나 몇몇 행사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닌 포괄적인 한국의 문화의 씨앗이며, 이 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시작만 거창하고 이를 지속시키지 못해서 사그라지는 것이 아닌, 더욱더 한국문화의 발전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

● 이 글을 쓴 김승근은

서울대학교 국악과와 베를린 음대 작곡과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도서관 주빈국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갈라콘서트 '책'을 위한 진연 등을 기획했다.